

대하드라마 ‘장영실’서 열연 펼친 송일국

“시대 앞서간 천재…그 위대함 알게 됐죠”

특별출연 삼둥이

“아빠 매 맞는 장면 좋아하더라구요”

기획사 옮긴 후

“육아 돈 많이 들어 어떤 캐릭터든 OK”



“제가 집에 공구 박스만 3개거든요. 감독님이 의외로 기계지셨는데 제가 기계를 잘 아는 걸 굉장 히 좋아하셨어요. 장영실의 발명품이 워낙 정교해 서 설계도대로 복원해도 잘 작동이 안 됐는데 제가 만지면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하하”

왕이나 장군 역할로 사극에 등장하던 송일국 (45)은 최근 종영한 KBS 1TV 대하드라마 ‘장영 실’에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역을 맡았다.

앞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 다’에 세쌍둥이 아들 대한·민국·만세와 함께 출연 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가 더해진 덕이다.

송일국은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장영실 종영 인터뷰에서 “장영실 역은 저에게도 조금 의외였다”며 감독님도 처음에는 저를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고 캐 스팅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사극 자체는 낯설지 않지만 주로 선 굵은 역할을 해왔기에 노비에서 출발하는 장영실 역은 그에게 도 도전이었다.

그는 “우선 목소리 톤도 달라야 했고 굵신거리는 장면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며 “촬영 전에 왕 역할 톤으로 소리를 지르며 리허설 하고 촬영에 들어가면 다 내려놓고 했다”며 웃었다.

곤장도 맞고 교수형 위기에도 처하는 등 우여곡 절을 겪은 장영실의 삶을 그렸지만, 그는 “사극지고는 짧기도 했고 한 인물에게 한 번에 많은 분량 이 쏠리고 그 다음에는 좀 쉬게 되는 대본의 스타 일상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다”며 “다만 대사 가 너무 어려워서 외국어를 외우는 기분이었다”고 울상을 짓기도 했다.

특별출연을 하기도 했던 ‘삼둥이’의 반응을 묻자 “제가 평소애 너무 짓궂게 놀아줘서인지 아빠가 맞는 장면을 보고 슬퍼하기는커녕 좋아하더라”고 답하며 깔깔 웃었다.

“촬영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사실 이 드라 마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엄청난 업적을 만드 신 분인지 몰랐는데 촬영을 하면서 그 위대함을 알 았어요. 한 다섯 세기만 늦게, 지금 태어나셨다면 ‘과학 한국’을 만들고 빛내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안타까웠죠”

그는 장영실의 작품을 전시해놓은 박물관을 인 급하며 “직접 보면 그 직관성과 천재성에 놀라게 된다.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영실’에서 호흡을 맞춘 대중 역의 김영철에 대해선 “예전 드라마(아인시대)에서 외조부(김두 환) 역을 맡으셨던 인연이 있어서인지 정말 잘 찡 겨주셨다”며 “현장에서 조상 특을 크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극애 처음 출연한 이지훈(장희재 역)이 사극애 적응하기 힘들어하자 어머니인 김을동 새 누리당 최고위원에게 부탁해 ‘족집게 과외’를 받도 록 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많이를 모르시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언기 족 집게 과외 선생님’이셨거든요. 유동근, 전광렬, 박 상원 선배 등을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그 덕애 유 동근 선배님과애 인연을 이어가면서 ‘멘토’처럼 됐 어요. 배우라는 직업도 유동근 선배님으로부터 ‘네 가 네 얼굴이먼 배우한다’라는 말을 듣고 혹해서 공채 시험을 봐서 붙으면서 하게 된거고요. ‘슈퍼 맨이 돌아왔다’ 출연을 결정할 때도 조언을 했었 죠.”

과거 송일국은 독도 수영으로 일본의 심기를 건 드려 드라마 방영 일정이 연기되고 정부 관료가 “앞으로 일본애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걸려온 관계가 되기도 했지만 ‘장영실’은 사 극으로는 꽤 높은 가격으로 일본애 수출됐다.

송일국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저의 캐스팅을 반대한 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질없이 수출돼 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사건이 취미로 알려진 그는 “골프에선 풀로를 한 다”며 “4명이 한팀이라 삼둥이가 좀 더 크면 아이 들과 한 팀으로 경기했으면 좋겠다애 꿈애 있다”고 다정한 아빠로서의 면모를 내비치기도 했다.

1인 기획사로 활동하다 ‘장영실’ 출연 확정 직후 대형 기획사로 적을 옮긴 그는 “혼자 하기 너무 힘 들었는데 왜 진짜 안 옮겼을까 후회한다”며 웃더 니 소속사 직원에게 “(스케줄) 많이 좀 잡아주세 요”라고 농담 같은 진담을 던졌다.

“사실 아이들 키우는 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사극이든 현대극이든 코믹한 것이든 들어온다면 다 하려고요. 이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니 까요” (웃음)

/연합뉴스

집으로 돌아온 ‘왕년의 스타’ 아빠들

EBS 스페셜 ‘아버지의 귀환’ 내일 방영



미운 일곱살처럼 자주 토라지는 남편…배우 차광수

평생 존재감 없던 남편, 잔소리꾼 되다…가수 박인준

집안일은 나몰라라, 역대급 배짱이 남편…개그맨 김창준

왕년엔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대접 꽤나 받았던 아빠들. 그러나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왔더니 잔판 신세다.

은퇴 후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들의 모습을 그리는 독특한 기획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EBS 스페셜 ‘아버지의 귀환’은 4월1일부터 배우 차광수, 가수 박인준, 개그맨 김창준의 ‘귀환’을 들여다본다.

드라마 ‘제5공화국’부터 최근 영화 ‘변호인’까지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약하는 배 우 차광수는 자신을 평생 ‘왕’ 대접해주던 아내의 관심이 아들로 옮겨간 것 같아 서운하 다. 아내 입장에서 멋지고 든든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주 토라지니 아들 하나 더 키 우는 기분이 들 수밖에.

‘오, 진아!’를 부른 혼혈가수 박인준은 평생 존재감 없는 남편이었다. 바쁜 스케줄애 술자리를 즐기느라 가족을 대하는 방법 자체가 낯선 이 남편은 애정표현을 ‘버럭’과 잔 소리로 한다.

‘청춘만만세’, ‘웃으면 좋아요’ 등 개 무대에서 맹활약하다 이제는 개그계가 아닌 거 실을 호령하는 ‘집돌이’가 된 개그맨 이창준은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아내의 부탁마저 듣 는 동 마는 동 해 아내 속을 태운다.

누구보다 편해야 할 가족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이들.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까.

세 사람이 출연하는 ‘아버지의 귀환-간 큰 남자들’은 1일 오후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콧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컬러풀 지구촌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40 아내가 뿔났다 남편발상(재)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안녕 우리말(재)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
⑫	00 KBS 뉴스 12	50 문화빅뱅 더 콘서트(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①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 옆집의 CEO들 스페셜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 블로그 탐지락(재)
② 30 직언직설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문스터(재) 25 내 품애 라바와 친구들 55 텔레문스터(재)	00 세상발견 유레카(재) 55 닥터 365
③	00 이웃집 찰스(재) 55 튜튼생활제조	05 후토스 일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기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걸스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④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 유치원 30 이육정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구러기 탐구생활
⑤ 4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로보텍스 30 파파독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애플론 또봇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고항견문록 남도애 살아리었다
⑦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탐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⑧ 20 나는 몸신이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8 뉴스 30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⑨ 50 서민갑부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00 KBS 스페셜 55 숨 터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⑪ 00 아내가 뿔났다 남편발상(재)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건설 50년 특집 <다시 쓰는 건설 신화>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필레이 토콘서트 청춘진단	10 자기가-백년손님
⑫ 30 천개의 비밀 에메이징 스토리(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맛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50 아시아 프리즘 아름다운 비밀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9:40 달라졌어요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오늘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5천년의 공존 인도네시아 물소)	11:00 <신호성의 소고기병아리공튀김> 11:00 세계테마기행 (재) 11:40 한국기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키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0:50 <북대서양 4개국을 가다 4부 비밀의 화산섬, 란사로테> 21:30 한국기행
06:10 세계의 눈 (극한의 바다, 배랑 해)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북한의 오락 시설>	16:00 곰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
07:00 지파이터스(재)	12:40 역사채널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한국애 산다>
08:00 덩동덩 유치원 1~3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9:00 레전드하이어 삼국전	23:50 역사채널 8(재)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4:00 코코몽2	19:30 EBS 뉴스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 2
09:00 곰디와 친구들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신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知天命이 넘는 오늘의 운세	3월 31일 (음 2월 23일 壬子)
子 48년생 제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72년생 목표에 성공성품 접근하고 있느니라. 84년생 기본 방향애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16, 28	午 42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54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66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78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7, 87
丑 49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61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쾌념치 말라. 73년생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닭 쫓던 개의 양태가 될 수도 있다. 85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98	未 43년생 의도한 일은 본궤도로 진압하고 있다. 55년생 장고하여 판단한다면 참된 결과애 이르게 될 것이다. 67년생 지구 빛나간 형태애 따르다 다시 한 번 점점 해봐야 한다. 79년생 별문제 없애 그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9, 23
寅 50년생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62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알라. 74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86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63	申 44년생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니 편하게 임해도 된다. 56년생 절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68년생 참으로 귀한 이가 매우 소중한 것과 관련시켜 주리라. 80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4, 35
卯 51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63년생 끝나는 마당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5년생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애 펼쳤을 때 오히려 압축 효과가 더 커진다. 87년생 다붙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행운의 숫자 : 54, 68	酉 45년생 행운이 코앞애 당도하였으니 어서 문을 열고 맞이하여라. 57년생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고역이 될 것이다. 69년생 서연치 않다면 중단해도 무방하다. 81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62, 25
辰 40년생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라. 52년생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64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76년생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88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74, 86	戌 46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58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70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82년생 시선이 가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돌릴 때다. 행운의 숫자 : 94, 53
巳 41년생 허심탄화한 자기 성찰 속에서 발전이 보인다. 53년생 경험애 비취렸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65년생 함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89년생 도전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91, 09	亥 47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라. 59년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71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가를 수밖에 없다. 83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애 충실해야 무탈하다. 행운의 숫자 : 15,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